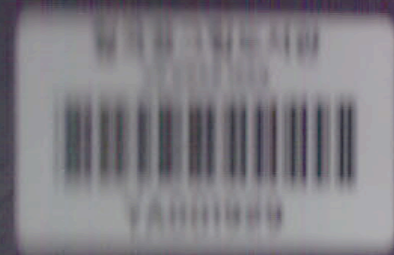


진심의 공간

김현진 에세이



마음과책

진심의 공간

나의 마음을 읽다
나의 삶을 그라다

김현진 에세이

기술

540.04
김94 ㅈ

“
우리가 사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분이 열릴 것이다
”

일상을 뛰어넘는 기와 고를 물다에
앞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읽어야 할 책임을 깨닫고, 한 걸음
오늘의 한 공간에 새겨져 있는 과거의 기억
가슴의 푸석함을 관상하다 보면
고물고물하던 마음 나 자신의 고물함이 사라진다
공간에 마음이 나와 마음이 공존하는 것은 어떤 공간에 어떤 마음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마음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마음을 담고 있다

(김현진 에세이)



540.04
김94 ㅈ

문은

비대칭이다

나쁜 말일수록
문에 가장 가까이 있다.

—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 《침묵의 기술》



문 앞에서 받은 상처

세상 밖으로 멀리 가면 갈수록 모든 말은 이미 다 했고 모든 글은 이미 다 쓰였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나온 말과 이미 적힌 글을 찾아 일생을 헤매는 것과 같다. 유형과 무형으로 인류에 새겨진 언어를 이해하고자 하루하루 살아간다. 매번 깨우침의 경계에는, 내가 머문 공간과 열린 공간 사이의 문이 있었다. 안과 밖, 나와 타인, 여기와 거기, 정지와 운동. 내가 비로소 손을 내밀어야만 그어지는 전이의 선이 분명히 존재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상대성과 불균형에서 태어나고 그 선 언저리에서 갈망과 좌절은 마치 꽃처럼 피고 진다. 그러나 인생

은 이미 이름을 확정한 꽃을 찾는 일도, 건기 쉬운 평지만을 찾는 일도 아니었다. 내가 키워야 하는 작은 나무를 발견하는 일 이었고, 기울어진 곳에서 균형 잡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다.

시인 라이너 쿤체의 표현처럼,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세상의 모든 문을 두드려본 적 없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다”(《자살》). 그렇지만, 얼마나 문을 두드렸는가 그 열렬함에 따라 누군가의 삶은 눈부시게 아름다워진다. 우리들은 운 좋게도 그들이 뒷사람을 위해 열어둔 문을 넘어 저 신비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자신의 육체와 감정의 상태를 진심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심오한 철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범하면 평범할수록 그 사람은 더 철학적일 수 있다. 진심을 표현할 예리하고 단순한 언어만 찾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소모되는 물질로 채워져 있는 육체의 소진에 대응하여 삶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은, 스스로 납득할 만한 정신의 언어로 들어가는 탐험이었다. 이 탐험은 낯선 세계로의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면서, 나와 너머의 세계를 구분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집의 우주에서도 어디로 문을 열 것인가는 의미심장하다. 집은 문을 다는 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문은, 열고 닫는 방향만이 중요하다. 문밖의 모양새나 재료는 그다음이다. 문의 방향은 집짓기에서 첫 번째로 숙고되는 것이다. 몇 센티미터 문

짜의 두께 안팎에는 어디로 열고 닫으며, 누구를 지키고 막을 지가 분명히 새겨져 있다. 문의 방향은 활용도가 높고 더 오래 머물 곳으로 정해진다. 문을 놓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과 밖, 나와 세계를 구분하는 일이다. 건축가는 어떤 공간을 구상하며 어디로 출입할지를, 어디로 열리게 할지를, 어디로 문의 방향을 둘지를 먼저 정한다. 그리고 이 순간,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당신은 문을 여는 사람인가요, 닫는 사람인가요? 들어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오는 사람인가요? 당신의 집에서는 어디가 더 중요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문을 열면 누구와 무엇이 보이나요?

문 앞에 서면 나와 타인이 분명히 정의되고, 너머로의 이동은 새로운 분위기와 질서에 적응하도록 우리를 재촉한다. 도시적으로나 한 공간 안에서나 문의 방향과 위치는 보통 사람들의 습관과 의식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 조심성 없는 사람이 문을 열더라도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어느 쪽이 더 안전한가,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가에 따라 문의 위치와 열리는 방향이 정해졌다.

우리는 문을 열며 공간의 크기를 가늠하고, 어딘가에 시선을

맺는다. 좋은 집에서는 이 시선을 빛이나 경치로 잡아둔다. 벽의 한가운데에 문을 뚫던 것이 한쪽으로 쏠리게 된 이유는, 방의 크기가 작아지고 가구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다. 가구가 기댈 벽면을 확보해야 했고, 공간이 실제보다 더 커 보이도록 하는 대각선 방향의 개방감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공간의 구조와 요소들은, 사람의 움직임과 개인적 감각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연관성은 종종 잊히고, 공허한 사물의 이름만 남았다.

최근에 간호대학을 설계하면서 간호학과와 기본 교육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그중 병실 문 앞 자세를 가르치는 수업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다. “문을 열고 닫을 때는 손으로 열고 닫는 것이 좋다. 물건을 내려놓고 문을 열며,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문을 활짝 열지 않는다. 여닫이문은 손잡이의 안쪽,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서 열며, 미닫이문 앞에서는 문짝이 밀리는 방향 쪽에 선다.”

신중한 사람은, 작고 평범한 문이라도 그 앞에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문의 방향을 살핀 뒤 문고리에 손을 댄다. 문의 구분이 만든 경계의 의미를 존중하고 나의 등장이 만들어낼 공간의 파장을 준비한다. 문이 필요했던 이유와 문의 생김새를 생각하면, 문 앞에서의 행동과 기대는 문의 디자인과 재료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요소의 본질적인 것과 관계된 기능과 의미를 읽어낼 때, 건물과 공간, 그것을 이루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모두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한다.

기울어진 문

일상생활에서 열린 문의 옆면을 세워두고 바라보는 일은 거의 없다. 지금 내 방문, 집의 대문을 활짝 열어 문짝 옆면이 눈앞으로 오도록 세워서 보면, 오래된 집일수록 문의 비대칭성, 내 삶의 고저가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대등한 양쪽을 열고 닫는 거라 여겨진 문이 사실은, 주인공에서 배경으로 물러나고, 펼쳐내던 이에서 기다리는 이로 바뀌는 인생의 굴곡을 담고 있다.

스스로 문을 여는 일을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어느 노인의 집에 들어섰다. 문을 잠그는 자물쇠가 어느 쪽에 있는지, 문의 어느 쪽 모서리가 더 닳았는지, 문손잡이 중 어느 것이 수평으로부터 더 기울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안에서 잠기는 그 문을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옛집에서 부모님 방문은 밖에서 여는 것보다 안에서 여는 것이 훨씬 수월했다. 때로는 허락을 받아야만 열 수 있었고, 안에서 열 때 문의 움직임

임은 더 부드러웠다. 인기척에 놀란 노인을 안심시키는 아들의 인사가 아주 무심한 걸 보니, 이 문이 아주 오래도록 안에서 열린 일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인지,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것인지, 자물쇠는 안심과 고립의 두 얼굴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 같다. 노인이 문밖으로 스스로 나서서 일은 없어졌다.

문고리를 잡는 일은, 삶을 주도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정치적 반체제주의자인 마우리시오 로젠코프는 수년 동안 감금된 이후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직면한 충격을 문고리의 문제로 말했다. “나오자마자, 우리는 갑자기 모든 문제들에 직면했다. 예를 들면 문고리 같은 우스운 문제들, 나에게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는 운동 반사가 없었다. 13년이 넘도록, 나는 문고리를 잡을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닫힌 문 앞에 서면 나는 순간적으로 난처해졌다. 그다음에는 뭘 해야 할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문을 스스로 열고 닫는 일은 이처럼, 한 개인이 생명을 얻고 세상 속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의 증거다. 노인의 집의 역사 80년을 온전히 채운 문은 아니겠지만, 가장 급격한 삶의 변화는 이 문 안팎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문의 건축에 있어서 그 기본 요소들, 즉 문틀, 문짝, 경첩 그리고 손잡이 중에서 경첩과 손잡이는 문의 방향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손잡이를 움직여야 잠금이 풀리고, 경첩이 달린 쪽의 반대 방향으로 문이 열린다. 안으로 열고 싶으면 밖에, 밖으로 열고 싶으면 안에 경첩을 단다. 건축의 모든 과정은 이런 숙고 가운데 있다. 열기 위해서는 단아야 하고,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함께 두어야 한다. 거푸집을 세우는 원리는 채움을 상상하는 일이고, 비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벽이 꼭 필요하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형태와 재료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리와 현상을 이해하여 공간을 통해 인간을 보는 일이다.

누구나 자신의 집을 꿈꾸면,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과 나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이유는, 건축도 우리의 생명처럼 한시성과 영원성을 함께 살아내야 해서다. 그래서 인공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은 그것을 만드는 모든 물질의 성질, 그 강점과 약점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다.

집의 장치 중 사소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곳이 바로 문 주위다. 문틀과 문짝 사이의 틈도 벌어진다. 오래된 문은 빛도 새어 들고 사람의 그림자도 언뜻언뜻 비친다. 그리고 문짝의 안팎이 서로 다르게 변하고, 문의 위와 아래가 달리 변한다. 안의 공간과 밖의 공간 사이의 공기와 습도와 빈도의 차이는 문의 두께 양 표면을 서로 다르게 변화시킨다. 문짝을 만들 때 힘을 방지하는 지지대를 꼭 만드는 이유는 환경과 이용의 비대칭성 때

문이다. 문은 주 방향이 있고 작동의 축을 기점으로 두 공간이 가진 대비가 클수록 변형은 분명하다. 오래 닫혀 있던 문일수록 문짝의 양면은 아주 다르다.

문이나 가구를 오래 사용하면 문짝이 내려앉거나 경첩이 헐거워져서 문이 제대로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다. 문을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첩을 조정하면 문의 수평이 다시 맞추어지고 힘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변형들이 보완된다. 문의 중심보다 아래에 손잡이가 존재하고, 경첩이 위쪽에 두 개, 아래쪽에 한 개가 있는 이유도 수평을 유지하는 것과 회전력을 의식해서다. 아래쪽 경첩은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위쪽 경첩은 밖으로 당기는 힘을 받게 되므로 오래 쓸수록 이곳부터 먼저 헐거워진다. 특히 문이 무거울수록 위쪽 경첩이 담당해야 할 힘이 커져서 위쪽 경첩을 더 많이 단다.

문은 완전한 수평과 대칭을 지켜 세워지지만, 그 안정감은 늘 위협받는다. 그래서 역학과 방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치와 사람의 손길을 늘 기다린다. 10년을 넘긴 우리 집 손잡이들은 이제 모두 아래로 쳐져 있고 문의 중심도 비껴나 있다. 사람과 일상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뚜렷해서, 마치 조각처럼 공간에 깊이 새겨진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문 안팎을 넘나들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첩을 죄는 순간만 문은 우리 손과 만난다. “건축은 지

적이거나 시각적인 개념화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작동 하거나 우리가 이동하면서 촉각적으로 겪는 것들, 일련의 개인 적 체험들을 통해서 더 잘 이해된다.”(톰 메인. 베르나르 추미 외, 《21세기 초의 건축》)

사람들은 집의 전체적 구조와 각 공간들의 개연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문을 열고 닫는 순간처럼, 접촉과 이동을 통해 단순한 감상보다 더 확실한 애작으로 건물과 공간을 기억한다. 촉각은 여러 감각들이 뒤엉켜 있는 입체적인 감각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단지 손으로 만져지는 표면의 성질보다는 사람의 움직임에 더 영향받는다. 부드러운 카펫 위로 올라섰을 때, 커튼을 젖혀 숨겨진 경치를 발견할 때, 손바닥으로 쓰다듬던 벽의 미세한 진동과 온도의 변화를 느낄 때, 문소리보다 조금 늦게 바람을 얼굴로 만날 때, 매끈한 손잡이를 움켜쥐고 돌릴 때, 건물은 건축적이 된다.

건축가는 손잡이와 난간을 공식처럼 외우고 있다. 장애우나 어르신들을 위한 난간은 바닥에서 80~90센티미터 높이에, 지름 32~38밀리미터의 원형 손잡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의 손잡이는 대부분 바닥에서 105~110센티미터 높이로 경첩의 반대쪽에 있다. 둥글거나 짧은 막대기 모양의 손잡이부터 문의 길이만큼 아주 긴 원형 손잡이까지 다양하다. 반면 문짝을 옆으로 열고 닫는 미닫이문의 손잡이는 그리 큰 역할을 하지 않



아도 된다. 손잡이가 없다 해도 테두리를 붙잡고 문 전체를 움직이면 된다.

밀폐와 안전과 같은, 성능의 문제가 개인의 공간에서도 중요해지면서 미닫이문보다는 여닫이문이 일반화되었다. 손잡이에 는 단순히 열고 닫는 문제가 아니라 귀한 것을 지키고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문은 건축의 탄생과 함께 존재했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안팎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열쇠나 빗장, 혹은 끈이면 충분했다. 서양 건축에서도 문고리와 문손잡이의 역사는 200년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잠그고 여는 일의 반복, 안전과 구분에 대한 열망 덕분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편리한 손잡이가 발명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모든 집의 손잡이는 똑같아졌고 손잡이의 작동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 손잡이를 고르는 일도, 문고리를 기억하는 일도 낮설다. 어떤 집만을 위해서 제작한 특별한 열쇠꼴이 앞에서 호흡을 가다듬는 일도 알지 못하고, 손 아래로 잡히는 문고리의 감촉에 잠시 멈추어 서는 일도 드물어졌다. 집과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사물들 앞에서 우리는 주변 환경과의 모든 관계를 잃어버린 느낌을 받는다. 누군가의 집대문 모양새를 기억하는 일도, 둥근 손잡이를 돌리는 법도, 문 앞에서 인기척을 내는 법도 이제는 알지 못한다.

사물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타인의 공간과 특별한 사물 앞에서 느끼는 낯선 감정이 두려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익숙하고 변화 없는 공간에서 갖는 편안함에 만족해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처럼 개인화되어 있는 어떤 집이나 문 앞에 서면 오히려 감각과 주도성을 잃는 것만 같다. 문의 종류와 디자인 등 머릿속에 쌓은 정보는 가득할지 몰라도 당장 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 가야 할지, 문을 어떻게 잡고 열고 닫아야 할지와 같은 사소한 몸짓조차 어색하다.

몸과 마음의 능력을 기르고 키우는 것, 그것은 공간의 사물들과 사람의 행동이 어우러지는 일이다. 작은 물건이라도 그 장치의 작동과 원리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사물을 인간과 관계하여 그 역할과 운동을 유추하는 사람, 자신과 타인에게 이롭도록 몸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경험의 핵심을 간직한 매개체'로서 정신, 즉 문화를 이어가는 사람이다.

기술화는 우리의 행동거지에서 망설임이나 신중함, 애정 같은 것을 몽땅 추방해버린다. (.....) 여닫이 창틀이 없이 미닫이 창틀만 있고 부드러운 손잡이 대신 돌리는 단추 자물통만이 존재하며, 거리를 향한 현관이나 문지방,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담

등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주체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험의 고사(枯死)에 대한 작지 않은 책임은, 수단-목적 관계에 완전히 종속되어버린 사물들이 그 취급을 오로지 작동에만 제한시키는 형식을 갖게 되면서, 행동이 끝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잔영이나 잉여—행동의 자유에서든, 사물의 자율성에서든—를 남겨놓지 않는 데 있다.

—테오도어 아도르노, 《미니마 모랄리아》

이 텍스트를 만나 그간 사람들의 소심하고 무심한 행동들 앞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의 원인이 완전히 이해되었다. 제스처(몸짓)가 정확하고도 거칠어지는 이유가 획일적인 기술화에 있었고, 사물의 속성이 인간의 행동 위에 군림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품위와 신중함으로부터 멀어졌다. 문손잡이를 재빨리 놓아버리거나, 문지방을 밟고 서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 타인의 공간의 문 앞에서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문의 방향과 손잡이의 작동을 몰라 허둥대는 사람들을 대하는 일들이, 불쾌함보다는 서글픔과 절망감의 여운이 길었던 이유를 나는 이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사물의 본연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관계 맺는 법에도 서툴다. 사물과 사물 사이, 인간과 사물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와 공간을 가늠하고 자신이 직접 그들을 연결

해본 경험이 적어서다. 사물은 우리에게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친다.

아버지는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이유도,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도 홀로 알아내셨다. 공기가 가득 차 있다며, 뜨거운 물의 순환이 막혀 있는 곳을 찾아내려고 분배기의 밸브 하나만 열고 나머지 모두를 잠그셨다. 밸브를 열면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났고, 이런 방법으로 모든 밸브를 하나씩 하나씩 열고 잠그기를 반복하셨다. 밸브에 호스를 끼워 작은 대야에 몇 번이고 물을 받고 비우는 일이 끝이 날 즈음, 식구들은 서서히 방을 데워줄 온기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문을 제대로 닫고 나가지 않는 아들을 위해 한번 열린 문짝이 저절로 천천히 닫힐 수 있도록, 문틀과 문짝 가장자리를 낚은 자전거의 용수철로 연결하셨다. 열고 닫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문 장식(裝飾)에는 재봉틀 기름을 조금 떨어뜨렸던 기억이 난다. 비 오는 날이면, 긴 막대를 이용해서 지붕을 따라 이어지는 물홈통의 한쪽을 살짝 들어 올리셨다. 빗물을 한쪽으로 흐르게 하자 어머니는 고무 통을 그 아래에 두셨고, 금방 한가득 채워진 빗물을 퍼서 빨래를 하셨다. 빗물이 미끌미끌해서 빨래가 잘된다 하셨다.

부모님은 집과 함께 사셨다. 집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몸과 경험을 두루두루 사용하게 하면서, 허기와 불안과 무료함을 달래주었던 것 같다. 식구들이 화장실 문에 튀어나온 부분을 누

른 것을 잊고 닫아버려 문이 잠기는 일이 잦아지자 아버지는 화장실 문짝 가장자리를 작은 반달 모양으로 파내셨다. 그래서 래치(문고리를 움직여서 문짝의 고정과 잠금을 만드는 것)가 문틀 쪽에 걸려 잠기더라도 밖에서 그 부분을 건드려 문을 열 수 있게 하셨다. 아버지는 그런 생활의 기술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 집의 사물들은 대개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었고, 끊임없는 고안과 보살핌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에게 길들여졌다. 나의 집에서 제대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불편을 염려하고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일이다.

우리는 타인의 문에 너무 가까이 있다

안의 사람은 밖을 그리워하고, 밖의 사람은 안을 궁금해한다. 건축의 많은 요소들이 그러했듯이, 집이라는 인공적인 환경과 대비를 이루는 자연, 우연, 암시 등은 문 안팎에 여러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요즘 집의 문과 달리, 노인의 집 모든 문에는 크고 작은 창이 나 있었다. 그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대부분의 창에는, 유리 한쪽 표면에 요철을 넣은 이른바 무늬유리가 끼워져 있었다. 그 집을 두 번 방문했지만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촬영한 사진들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유리의 무늬들이 서



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기도 했고, 안개나 성애가 낀 것 같기도 했고 어떤 무늬는 형언하기 어려운 추상의 패턴 같기도 했다.

무늬유리는 판float유리를 만들 때 무늬를 찍어내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인 유리를 액화된 양철 안으로 흘려보내면, 양철보다 가벼운 액화 유리는 평평한 면을 만들며 그 위에 길게 펼쳐지는데 이렇게 만든 유리를 판유리라고 한다. 한 면에만 무늬를 찍어 만들기 때문에 무늬를 새긴 유리면은 그렇지 않은 면보다 물리적으로 더 약하다. 게다가 판유리는, 부서지면 콩알처럼 잘게 깨지는 강화유리와 달리 크고 날카로운 파편으로 부서져 더 위험하다. 물이 묻으면 투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얼룩이 묻거나 손상되기가 쉬워 무늬면은 안쪽을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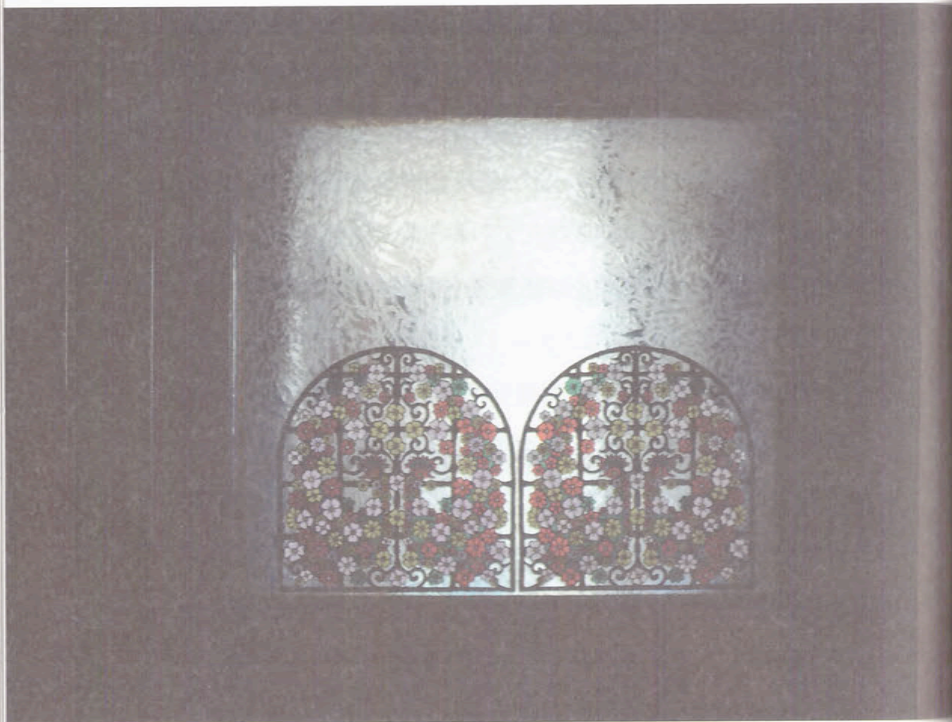
우리는 자신의 공간 안에서, 빛과 풍경은 간직하되 타인의 호기심으로부터는 보호받기를 원한다. 무늬로 안과 밖을 구분한다. 무늬가 새겨진 면은 공간의 주인을, 그렇지 않은 면은 손님을 향한다. 선명하고 아름다운 것일수록 변하기도 쉬운 것은 세상사 이치와 같다. 방 안에 있는 사람, 주인만이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

한편, 무늬는 빛을 투과하여 은근한 분위기의 공간을 만들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컸다.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은 미스트 무늬유리를 끼우면, 밖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주 약한 빛만 방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무늬의 유리와 투명 유리를 나란히 놓으면, 그 대비를 통해 유리면에서도 마치 벽과 같은 불투명성이 느껴진다. 그래서 무늬유리는 햇빛과 비를 직접 만나는 곳보다는 공간 안에 다시 공간을 만들 때 즐겨 사용한다. 안개나 비와 같은 자연의 암시는 가장 사랑받는 패턴이다. 물을 닮은 아쿠아 무늬, 유리면을 타고 비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 빗물 무늬, 마치 물이 얼어붙은 듯한 모습의 나시지(梨子地) 무늬를 통해 보이는 그 너머의 공간은 마치 바깥인 듯한 착각을 준다. 무늬유리를 만들 때에는 유리의 한쪽 면에만 무늬를 새긴다.

건축의 많은 요소들이 그러했듯이, 집의 숙명, 타인의 시선과 경치의 동경, 기하의 질서와 삶의 의외성은 여기에 그려져 있다. 노인의 집 작은방 출입구와 별도로 방 안에 나 있는 나무 문은 특별했다. 성애가 낀 것 같은 무늬유리 위에 작고 화려한 색깔의 꽃잎 모양 스탠드 글라스가 덧붙여 있었다. 곤히 잠든 식구들을 깨우지 않고 식사를 준비하러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이 문을 여는 이에게 주는 선물 같았다. 이 문을 통하면 방 안에서 복도를 거치지 않고 부엌으로 바로 나갈 수 있다.

문 앞에 멈추어 선 채 생각했다. '열어도 될까? 아침마다 이 문을 열던 그 사람도 꽃의 의미를 남다르게 느꼈을까?' 이럴 때



면 사물의 본래 일과 그 성질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은 산산이 부서진다. 상상과 특별한 감상의 증거를 통해서, 어떤 표현도 단 하나의 의미로 고정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벽과 하나가 된 문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이러한 섬세함은 사물의 서정성을 전해주기에 충분했다.

현대적인 집을 갖고 싶어 했지만,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집이 마치 벗어 던지고 싶을 만큼 불편한 옷처럼 되어버린다. 그리고 사람이 그 공간을 바꾸어버린다. 창이 많아 밝고 환한 집을 불편해하며 두꺼운 커튼을 창 앞에 드리울 것이다. 부엌을 채우는 전자제품과 싱크대의 가격을, 일의 노고를 덜어줄 음악이나 풍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문 너머에는 누가 있는지, 무슨 일이 있을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공간도 위안이 될 수 없다.

‘고요하고 신중하고 확고하게’ 문 닫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손잡이를 끝까지 내리거나 돌려서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하는 사람, 문이 드러내야 하는 무수한 정보를 감추거나, 반대로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공간과 사물로부터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물과 몸짓의 관계를 나 자신과 환경에 투사하는 일은, 물질적 가치와 실증적 관계에 의존하는 가치관

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연결성의 인식, 이것이야말로 인간애와 건축의 원리를 이해하는 기본이다.

신체의 기관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연결성은 개개 기관의 역할을 넘어서 생명 그 자체와 직결된다. 집의 요소들도 생명 원리에 따라 꿈틀꿈틀한다. 문은 움직이려 하고, 계단은 걸으려 하고, 창은 들쭉거리려 한다. 그 신호를 무시할 때, 우리는 관계의 행동을 포기하고, 건축이 줄 수 있는 수많은 신비를 놓친다. 각각의 공간과 공간을 이루는 사물들도 서로 혹은 인간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건축이 추구했던 추상의 목표에 우리를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인간과 자연의 불완전함은 균형과 안정으로 나아가고자 끝없이 노력하게 했다. 상대성과 비대칭은 마치 절대 바닥날 리 없는 연료처럼, 서로를 태워 우리를 전진시키고 성숙시켰다.

‘사물’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는, 물질의 유일한 가치를 가늠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실과 물체의 탄생에 존재하는, 본래의 ‘일과 성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일이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과 그 공간의 아주 작은 요소들에 대해 섬세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 그리고 글을 쓰는 동안 나 자신에게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발견한 문, 계단, 창을 깊이 관찰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심성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

나는 건축이 사람들을 고통과 압박감으로부터 치유하고, 불

편함과 외로움으로부터 구원할 거라는 믿음을 경계한다. 창조는 건축가의 몫이고, 그의 삶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과 훌륭한 협업 기술자들은 건축의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풍부하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이에게조차 건축은 치유와 구원이 될 수는 없었다. 기꺼이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할 때 건축은 그 변화의 결정적인 무엇이 된다. 일상의 환경과 평범한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사색적인 사람이 된다면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분명 변화할 것이다.

사람들은 지식과 지위가 부여한 인공적 자태보다, 환경과 행동이 만든 은근한 자태를 가진 이를 사랑하고도 두려워한다. 그가 가진 평정과 침묵,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얼굴에서 밝고 개방적이며, 생기 넘치는 기운이 느껴지고, 말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침묵”(《침묵의 기술》)은 공간과 함께 빛이 난다. 이 침묵을 아는 이라면 건축과 환경의 획일화를 혐오하고, 물질의 외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진실을 이미 알고 있다. 각자 느낀 진실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말들이 바로 글과 공감의 힘이다. 그래서 글이 태어나고 음악은 흐르고 건축은 세워진다. 자신이 느낀 인생의 진실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은 일렁거린다.

동시에 인간의 말이 가진 필연적인 불완전성과 똑같이, 아주 오래 지속되는 건축과 변동하는 삶 사이의 불완전성에 대한 광신과 회의의 가능성 모두를 나는 열어두고 싶었다. 인간의 말은 얼마나 불완전한가. 마찬가지로 공간의 주체와 타자의 구분, 이 자체가 배제해버리는 삶의 변칙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유연하고 느슨하고 무엇이든 엄격하게 정하지 않는 집을 가지는 일 뿐인 것 같다. 그렇지만 집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단 어떤 구조와 영역의 질서를 확립하면 건축은 되돌릴 수 없다. 단지 정착과 이동, 소모와 지속, 고요와 변동, 주체와 타자의 균형은 우리의 집 안에서조차 불안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행동과 사물의 조화를 그 사이에 놓을 뿐이다. 집이 만들어진 후에도, 벽이 완전히 세워진 뒤에도, 방문이 달린 후에도, 이곳의 나와 문밖 타인 사이의 구분은 절대적일 수 없다.

사진은 시간을 멈춘다고 한다. 글도 시간을 멈춘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시간을 가장 멋대로 조정하는 것은 건축이다. 환경과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즉 삶을 제대로 읽고자 하는 노력은 이렇게 시간을 내 눈앞에 멈추어 세워야 시작된다. 만약 전환의 순간을 오래 붙드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리고 공간의 원리를 읽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풍경과 사물은 자신의 존재를 낱알이 드러낼 것이다. 건축

에 있어서 은유와 추상화가 필요한 이유는,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이 존재하면서 인간의 정신이 무궁무진하게 활동할 여지를 주기 위해서다. 그때 좋은 공간은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바로 건축의 위대함이다. 아름다운 문이 삶의 고단함을 덜어주지는 못해도, 휴식과 노고, 자신과 가족, 나와 타인, 여기와 너머 사이에 지혜를 준다.

조금 물러나 바라보는 문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타인의 문에
너무 가까이 있다

문은 자신의 원을 그린다.
일정한 궤도의 반원을 긋거나
반경의 공간을 자신에게 종속한다.

문은 사람이다.
그 주변은 늘 불안하고,
움직임은 항상 대기 상태다.

공간이 클수록 문은 커지고
불안정의 우주도 넓어진다.

궤도의 순환 방향이 모호하다면,
원 밖으로 물리날 공간이 충분치 않다면,
공간의 크기에 걸맞은 문을 가지지 못한다면,
경계에서 어떤 암시도 느끼지 못한다면,

타인의 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설 수밖에 없다.
방향, 공간, 크기, 암시.
문의 조건들.

